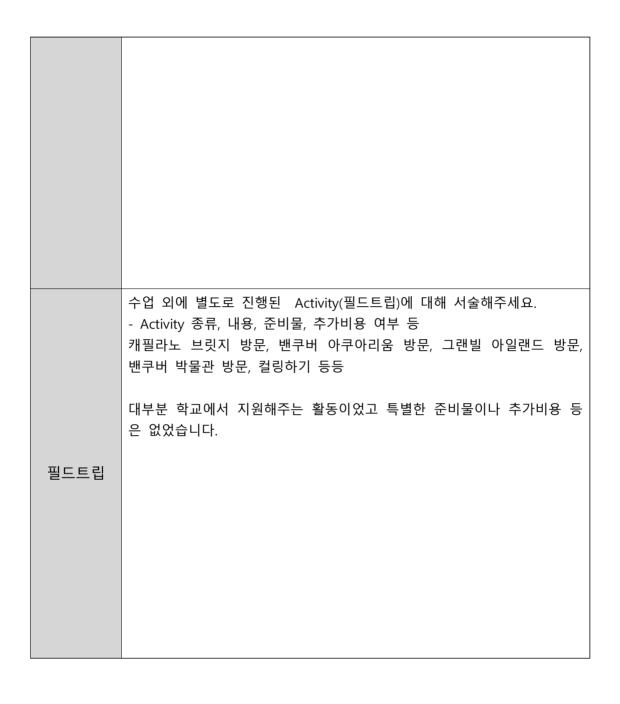
2019학년도 동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20. 01. 12. ~ 02. 02.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랑가라 대학교는 캐나다 라인에 있는 랑가라 역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테크놀로지 건물의 외관은 화려했고 대학교의 건물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건물들로 마치 제가 넷플릭스의 하이틴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매우 자유로워보였고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 때문에 부츠와 모자, 방수가 되는 점퍼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다국적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고 캐나다를 온 게 아니라 밴쿠버 올림픽의 관객으로 참가한 기분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해야할 일들만 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 좋았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3주동안 수업을 함께_해주셨던 메리엇 선생님, 벤 선생님 등등은 매우 친절하시고 학생들의 편의를 먼저 신경써주셨습니다. 각각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언제나 늘 친절하게 웃어주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의 경우에는 어학연수인 만큼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았고 특히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이한 표현들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캐나다에 처음 입국했을 때는 날씨가 매우 화장해서 다들 기분이 좋은 상 태였지만 2~3주차에는 폭설로 학교가 하루 휴강할만큼 눈이 많이 왔었고 마지막 주차에는 매일 우산을 가지고 다녔을 정도로 비가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날이 풀렸을 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 았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치안은 매우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자신의 물건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모두 노력 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시설은 매우 좋았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이 사생활을 잘 존중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 샤워 시간, 빨래 하는 방법 등 큰 규칙들을 물 어보고 서로 지키는 식으로 홈스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주로 아침에는 시리얼을 먹고 점심에는 홈스테이에서 가져온 볶음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밤에는 거의 다운타운이나 학교 근처에서 외식을 하였습니다.		
교통	시내교통 관련 밴쿠버는 교통이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직선거리로 되어있어서 버스 도 대부분 직진하는 차량이 많고 지도를 보고 단번에 찾아갈 수 있었습니 다. 또한 한 버스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300000~400000	
식비	500000	
합계	80~9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유심 교환, 우산 꼭 챙기기(겨울에 가면 무조건 필수), 모자, 마스크 챙기기, 홈스테이 가 족들에게 줄 선물 가져가기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에서의 3주는 정말 가치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외국인들이 영어로 말할 때 당황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비록 이번 겨울은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여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날씨가 화창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밴쿠버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밴쿠버는 물가가 비싸고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담을 뛰어넘을 만큼 시민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3주 어학연수였지만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며 쇼핑도 하고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좋은 여행이자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 1. 그랜빌 아일랜드 옆 호수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밴쿠버는 전반적으로 호수에 보트가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2. 캐나다 플레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 3. 개스타운에 있는 증기 개스 기관타운을 촬영한 것입니다.
- 4. 제가 3주동안 머물렀던 홈스테이 장소를 촬영한 것입니다.
- 5. 친구들과 제가 3주동안 제일 많이 방문했던 상점입니다. 온갖 물건이 다 있었고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 6. 다운타운에 있는 허드슨베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야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